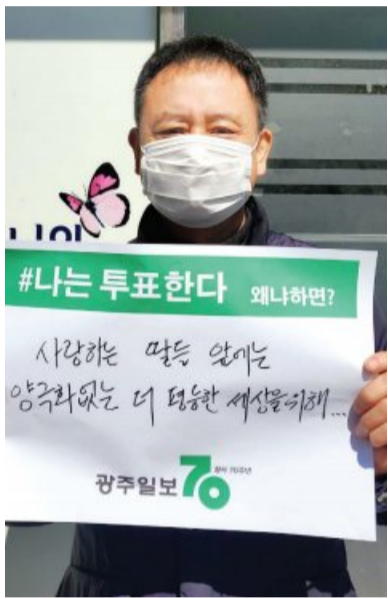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나는 투표한다. 왜냐하면?

## 나·가족·사회...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국언 대표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지역 실정 맞는 일자리·주거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됐으면”

광주일보가 지난 7-8일 진행한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 ‘#나는 투표한다. 왜냐하면?’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경제와 일자리,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의 한 표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53)대표는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고조된 양극화 사회가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경제적으로 만연한 양극화가 다음 정부에서는 완화됐으면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미래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또 광주 은교회 최현열(48) 담임목사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나의 한표로 나타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기대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었으면 한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원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 분열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은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청년 나정화(여·29)씨는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도 높은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역을 이탈하는 친구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와 주거정책이 펼쳐져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 씨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정취운(여·28) 대리는 “입사 초기와 달리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일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는 ‘워라벨’이 자리잡고 있다. 다음 행정부에서는 주 4일 근무 등 직장인의 만족도가 오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소망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무인 밀키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령(여·40)씨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농수축산물은 물론 월세, 공과금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세상에서 모든 고객들과 자영업자가 먹고 사는 것 만큼은 걱정없도록 당선자가 애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타일 시공 전문가인 박성민(34)씨는 “심각한 고용난에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거나 거리두기를 틈타 주택 보수를 하려는 이가 늘고 있다”면서 “직장인에 비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도 걱정 없이 노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부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김순영(59)씨는 “부디 공명정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가 됐으면 한다.

항상 눈과 귀를 열고 국정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양연심(56)씨는 “다음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 집값 문제 해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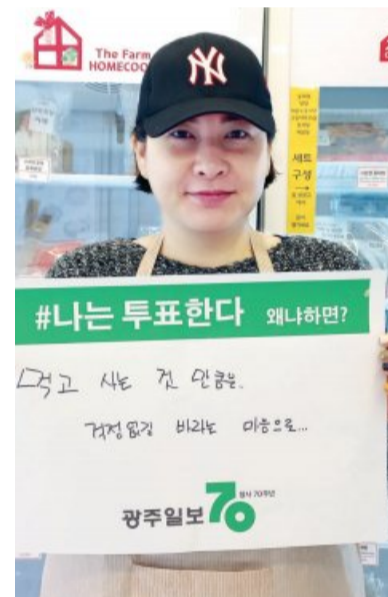
샌드아티스트 주홍(55) 작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작품만 가능한 세상을 거부한다. 예술은 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내 표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상을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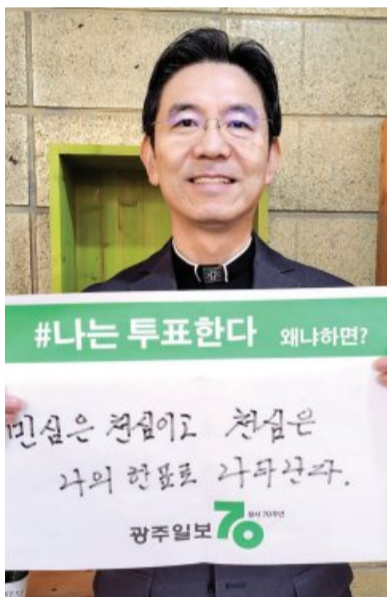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취운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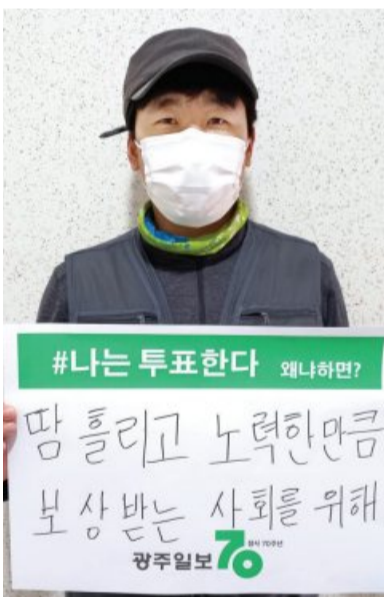
김보령 사장



최현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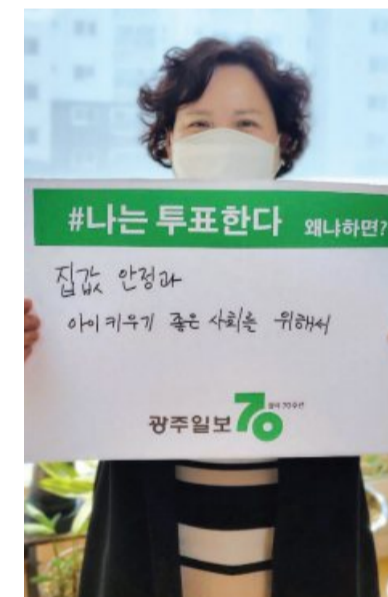
나정화씨



박성민씨



김순영씨



양연심씨



주홍 작가

## 5년 함께할 대통령 결정하셨습니까?

대선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 확진·격리 오후 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 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자정까지 혼신의 힘을 들여 선거 유세를 마치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상황에서 양강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승리를 다짐하며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초점 전 양산인 가운데 이 후보가 1~3% 포인트 수준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빙우세’지만 이 후보의 지지를 상승세가 가팔라 실제 득표에서는 더 격차를 벌일 수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승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부동층이 대선 막판 ‘정권교체론’으로 쏠리면서 윤 후보의 압도적 우위로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이 나뉘듯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일관됐다. 선거운동 막판까지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졌고 보수-진보 진영의 대치 국면도 전개됐다. 세대, 젠더간의 갈등 양상도 나타났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대선 이후가 더 걱정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역설적으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집단 지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마주한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 국제정세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급등, 전 세계적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또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결국, 대선을 계기로 벌어진 민심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수완 전시장 & 서비스센터 2022년 3월 Grand Open!

■ 딜러십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망대로 1041(학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호운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대동 603(한남 20소초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광주 제2 딜러십(오르 역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